

“지역사회 안전·돌봄체계 구축 성범죄자 처벌 대폭 강화해야”

■ 국회 아동·여성 성폭력 대책 특위 구성 합의

아동·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난 3일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아동·여성 성범죄 근절 특위와 민주당 여성·아동 성범죄 근절대책 특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당 특위는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지역사회 안전, 돌봄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한 근본적 성범죄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여야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사위 행안위 여성위 복지위 교과위 문방위 기재위 등 관련 상임위 위원들이 고루 참여하는 국회 차원 특위 구성 ▲성범죄 근절에 필요한 예산 적극 반영 등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들은 “최근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아동·여성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해 대한민국 전 국민과 함께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성폭력 방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각 당이 대책위를 수립해 활동하고 있다”며 “그러나 연일 발생하는 열거적인 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기존의 성폭력방지대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특위 구성의 취지를 밝혔다.

민주당 이웅섭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청이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과거 대책 반복이고 대증요법에 그치고 있다”며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된 성범죄 관련 업무를 통합해 ‘성폭력 방지위원회’ 같은 기구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집합유예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밤과 후 ‘나홀로 학생’이 없도록 안전 돌봄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소지자도 처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성폭행은 피해자의 신체뿐 아니라 가족의 인생과 영혼까지 파괴한다는 인식을 갖고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양형강화 등으로 다시는 가해자가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특단의 제도적 장치를 국회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와 가족관련 대책을 만들어 제2, 제3의 피해로 고통받지 않게 해야 하며, 음란물 차단이나 사회적 환경을 진단하고 예방, 해결할 대책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도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아동 성범죄를 비롯한 ‘묻지마 범죄’에 대해 “새누리당은 성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형집행 논란과 관련, “우리나라는 거의 15년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고 엠네스티로부터 사형폐지 국가로 지정받았다”며 “일부에서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대해 사형집행 재개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너무 성급한 만큼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의전화 등 지역 여성단체들이 4일 광주시청 앞에서 나주 초등학교 성폭행 사건 관련 회견을 갖고 성범죄 예방과 여성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여성들 “불안해서 못살겠다”

광주·전남 여성단체 성범죄자 처벌 강화·안전 대책 촉구

광주·전남 여성단체가 여성폭력 범죄자 처벌 강화와 여성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의전화 등 지역 여성단체들은 4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방과 길거리 등 일상에서 폭력 위협에 노출돼 있는 여성들의 현실을 규탄하

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주 올레길, 통영 초등학교 납치 살해, 만삭 임신부 성폭행에 이어 나주 초등학교 성폭행 사건까지 일상에서조차 여성 안전 위협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신고제 폐지, 처벌 강화, 피해자와 가

족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또 여성폭력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정부 차원의 중장기 대책 마련과 여성폭력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는 대국민 홍보 및 예방교육 강화 등을 촉구했다.

여성단체들은 이날 오후 7시 광주시 서구 관천동 유·스퀘어 광장에서

우암학원 창학62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061) 360-5050

19대 국회의원 세비 슬그머니 20% 올려

1인 2326만원 증가... ‘특권 내려놓기’ 무색

19대 국회 국회의원의 1인당 세비가 18대에 비해 20% 가량 인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19대 국회 첫해인 올해 책정된 세비는 1억3796만원으로 18대 국회(2008~2011년) 평균 1억1470만원보다 2326만원(20.3%) 증가했다.

18대 국회 세비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억1304만원으로 동결됐지만 지난해 1억1969만원으로 665만원(5.9%) 뛰었고, 올해 들어선 2000만원 가까이 인상되는 등 최근 2년간 큰 폭으로 상승했다.

국회사무처 측은 지난해 세비 관

련 규정이 바뀌면서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비가 인상(189만원→313만원)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국회의원이 지난해부터 세비와 별도로 국가공무원 가족수당·학비보조수당 혜택까지 받고 있어 실제 연봉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세비 인상 소식이 알려지면서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외쳤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 놓기’ 주장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야가 ‘무노동 무임금’을 비롯한 각종 채신을 주장했음에도 자신들의 세비는 슬쩍 올랐다는 점에서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

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임시국회의 경우 단 한 차례 본회의 개최도 없이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1명당 월 1000만원을 웃도는 세비를 챙겨간 셈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19대 국회의원 세비를 보면 18대 국회보다 20% 더 늘었다”며 “의원 개개인의 생산성이 18대에 비해 올라가야 한다. 정기국회 때 대충하다가가는 분명히 추가 세비반납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민주 “국회의원 겸직·영리활동 금지”

‘특권 폐지’ 당론 법안 확정

연로회원지원금 폐지 발의

민주통합당이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를 담은 4차 당론 법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19개 민생 법안(1차), 9개 경제민주화 법안(2차), 7개 검찰개혁 법안(3차) 등을 당론 발의한 바 있다.

이웅섭 정책위의장은 4일 기자회견을 갖고 “3일 정책의총에서 국회의원 특권폐지, 고용안정과 좋은 일

자리 확대, 성폭력 방지대책 등을 담은 법률 개정안 13개와 2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특권폐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의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국무위원 ▲비영리공익 법인·단체의 임원, 그밖에 공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명예직을 제외한 모든 겸직이 금지된다.

이 의원은 또 국회의원의 연로회원

지원금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 외에 민주당은 노동기본권 신장 및 고용안정,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담은 노동관계법안도 당론으로 확정했다. 실업자·합습지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도 노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60세 전후와 청년고용할당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선택 2013,
원광대학교!**

원광대학교
WONKWANG UNIVERSITY

원광대학교의 강점!

- ✓2012년 취업을 공시 전국2위!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공시, 졸업자 3,000명 이상 '가'그룹)
- ✓인문학적 소양강화 / 의·생명 / 그린에너지 / 중국문제 특성화
- ✓고급공무원(5급) 양성을 위한 '봉황인재학부' 신설
- ✓후마니타스 장학금 등 교내외 장학금 대폭 증액

2013학년도 원광대학교 신입생 수시모집

입학상담! 원광대학교 입학관리처 063-850-5161~3

수시1차	원서접수 : 2012. 9. 6(목) ~ 9. 11(화)	수시2차	원서접수 : 2012. 11. 12(월) ~ 11. 16(금)
------	---------------------------------	------	------------------------------------

www.wku.ac.kr blog.naver.com/wkuniv facebook.com/WonkwangUniversity